

광주 기아차 에너지경영 국제인증

국내 업계 첫 'ISO 50001' 획득...환경경영 시스템도 재인증 받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다음달 15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녹색경영을 인정받는 것이어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30일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En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은 이를 기념해 이날 광주공장 홍보관에서 'ISO 50001' 최초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종웅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기아차 임직원과 국제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LRQA Korea) 유상근 한국지사장이 참석했다.

'ISO 50001'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새로 제정된 국제 규격으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영 계획·실행·운영 등 에너지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 표준이다.

로이드인증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 사흘간 1·2·3공장 등 광주공장 22개 부서에서 현장 실사를 벌여 에너지경영을 인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또 이날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재획득했다. ISO 14001은 3년마다 환경성 향상·환경사고 예방 개선·법규 준수 등 심사를 거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국내 최초로 환경과 에너지분야 동시 인증 획득 기업이 됐다.

광주공장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 강화, 에너지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정부 규제 강화와 국제 무역장벽 선제적 대응, 녹색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환경·에너지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녹색경영'의 선도업체로서 환경문제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광주공장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소하리·화성공장, 서비센터, 해외 사업장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0일 김중웅(왼쪽) 기아차 광주공장장이 유상근(오른쪽) 로이드인증원 한국지사장으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전달 받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농산물 수출길 빨라지고 넓어진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항공과 운송 업무 협약

국내 신선 농산물의 수출 길이 빨라지고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5일 대한항공과 수출 신선 농산물 항공 운송에 관한 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국내 신선 농산물의 장거리 수출은 신선도 유지와 높은 물류 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까다로웠지만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aT에서는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을 대상으로 딸기, 화훼류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지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유럽, 중동 등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신선 농산물 수입 실적은 딸기 4만톤(세계 6위), 토마토 72만톤(세계 2위), 잠미 4억8천만본(세계 6위), 파프리카 12만톤(세계 7위)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 딸기 수출은 동남아 시장 진출 등으로 지난해 2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초반(1100만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를 통해 저장성이 짧은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킨 덕분으로 풀이된다.

김재수 aT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항공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수출 가능성이 높았으나 진출이 어려웠던 러시아, 유럽 등에 국내 고품질 신선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엔 세제, 토지·설비자금 지원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정의

했다.

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용과 설비 투자금액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협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겐 가산점을 주고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학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설치하고, 국방어학원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합동군사대학교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스쿠터도 전기가 대체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워크-월드 스마트그리드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S&T모터스의 전기스쿠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중소기업전망 7개월 연속 하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78.0으로 전 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86.1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여전히 기

준치 100을 밑돌아 11월에도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목별로 보면 생산(81.6→78.4), 내수(79.0→77.1), 수출(81.8→80.0), 경상이익(78.5→74.0), 자금사정(79.7→77.3), 원자재조달사정(90.5→90.3)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또 생산설비수준(98.0→94.4)과 제품재고수준(104.0→95.4)도 기준치에 못미쳤고, 고용수준(88.7→87.8)

은 전 달보다 더 떨어져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대 경영 애로 사항으로 내수부진(63.9%)을 꼽았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4.0%), 업체 간 과당경쟁(32.0%), 원자재 가격 상승(30.9%), 인력확보 곤란(29.9%), 인건비 상승(29.9%), 자금조달 곤란(17.5%),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17.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선운지구 EG 아파트 경쟁률 1.6대 1 청약 마감

중견 주택업체 EG건설이 광주 선운지구에 공급하는 'EG the 1' 아파트가 최고 2.6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한 EG건설의 '광주 선운지구 EG the 1' 청약 결과, 총 688가구 모집에 1148명이 몰려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성공리에 청약 마감했다.

7블럭 전용면적 84㎡(33평형)형은 3순위에서 265가구 모집에 626명이 몰려 2.6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EG the 1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0~

84㎡ 1200가구로, 선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다.

EG건설은 이 중 5블럭 70㎡(28평형) 112가구, 73㎡(29평형) 114가구, 84㎡(33평형) 152가구와 7블럭 70㎡ 45가구, 84㎡ 265가구 등 총 688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다음달 1일(7블럭)과 2일(5블럭) 당첨자를 발표하고, 7일부터 계약에 나선다. 모델하우스는 서구 광천동 광천4거리와 광천파출소 중간에 위치해 있다. 분양 문의 062-368-88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R&D 투자 1조 줄면 일자리 1만6000개 증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1조원 줄면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 의뢰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인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가 관련 인력 26만4000명을 포함해 50만명의 고용 효과를 냈다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를 축소하면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의 R&D 투자가 많은 국가는 실업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99.58 (+8.06)
▲ 코스닥지수	502.31 (+7.43)
▼ 금리 (국고채 3년)	2.78% (-0.01)
▼ 원·달러 환율	1,091.50원 (-4.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군산으로 놀러오세요!!

장소 :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일원
기간 : 2012. 11. 21 ~ 11. 25

전국 최대 철새 축제

2012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 제9회 군산세계

2012전북방문의 해 주말 탐조투어는 2013년 2월말까지 계속됩니다!